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 진작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 응원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상징 이미지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무원과 소방대원, 시의원, 상인, 연예인 등 각계각층 시민들의 격려가 대한민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무관중 경기로 개막한 뒤 세계에 중계방송되고 있는 골프, 프로축구·야구 선수들의 '덕분에 챌린지' 세리머니는 응원과 함께 K-방역의 힘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글 전수영 기자



‘덕분에’ 세리머니

5월 10일 포항 스틸아드에서 열린 2020 K리그1 부산 아이파크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포항 일류첸코(오른쪽 두 번째)와 동료 선수들이 '덕분에 챌린지' 포즈로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현태 기자



시구도 비접촉

5월 5일 경기도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KBO리그 프로야구 개막전 롯데 자이언츠와 KT WIZ의 경기에서 어린이가 비접촉 시구를 하고 있다.

홍기원 기자



프로야구 무관중 개막전

2020 KBO 프로야구 개막일인 5월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두산과 LG 선수들이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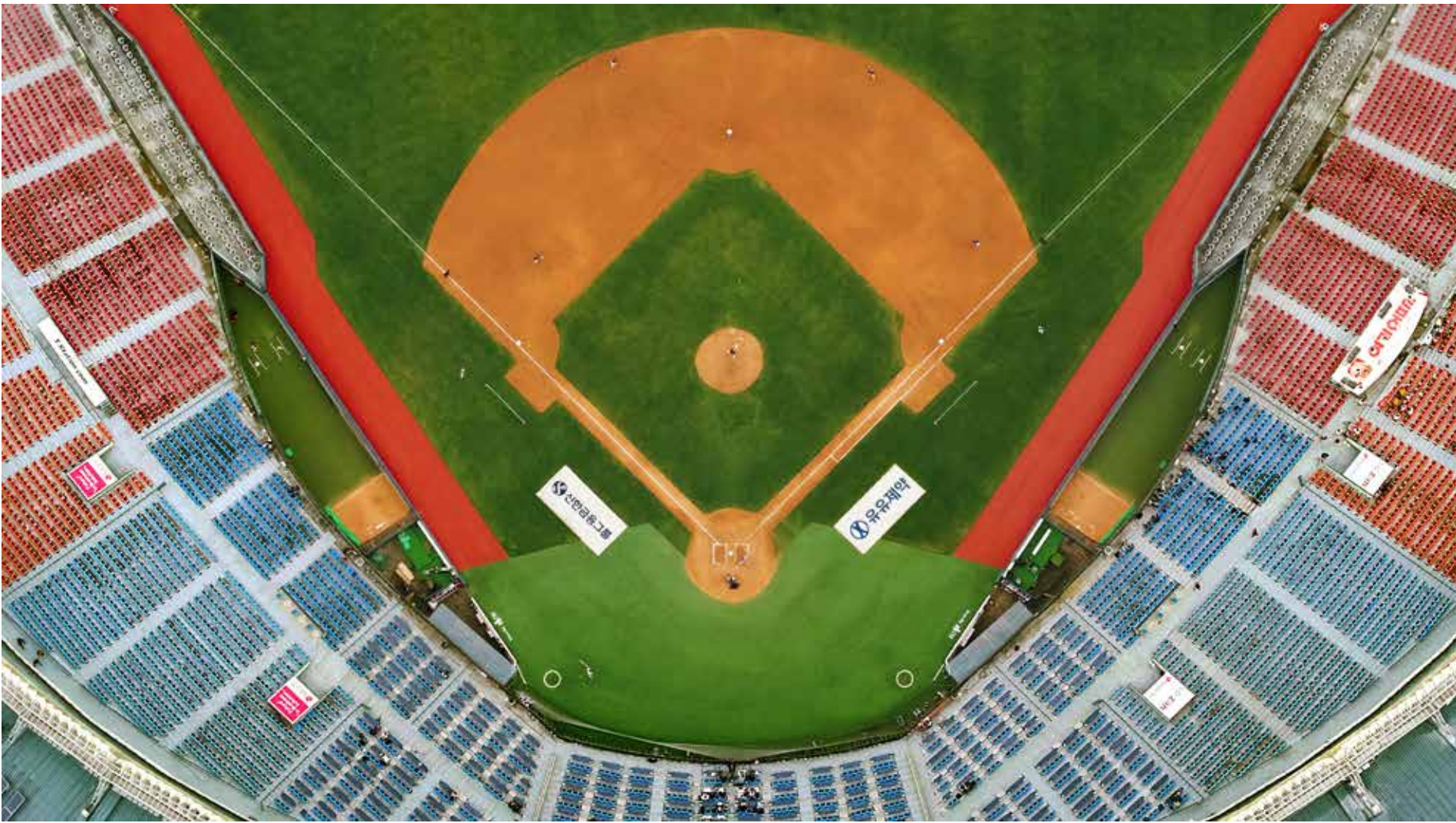
김도훈 기자



그림으로 만든 관중

5월 10일 포항 스틸아드에서 열린 2020 K리그1 부산 아이파크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가 무관중 속에 열렸다. 관중석이 마스크 쓴 팬들의 모습을 그려 넣은 현수막으로 덮여 있다.

김현태 기자





비접촉 면회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5월 7일 대전보훈요양원 비접촉 안심 면회 창구에서 한 가족이 면회하고 있다.

김준범 기자



'갤러리가 안 보이네'

5월 15일 경기도 양주시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제42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가 무관중 속에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골프 대회가 중단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규 투어다.

한종찬 기자



비접촉 수업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 최은식(왼쪽) 교수와 4학년 강승주 학생이 5월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둔 채 비올라 현악 실기 수업을 하고 있다. 6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서울대는 실험·실습이나 실기가 포함된 수업을 대면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홍해인 기자





인택트 아웃도어 '카누'

황금연휴 나흘째인 5월 3일 강원 춘천시 의암호 물레길에서 시민들이 카누를 타고 있다.

양지웅 기자



'선생님 사랑해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운중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하며 선생님에게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홍기원 기자



'안심하고 머리하세요'

5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세워진 미용실 광고판에 마스크를 쓰고 헤어 롤을 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지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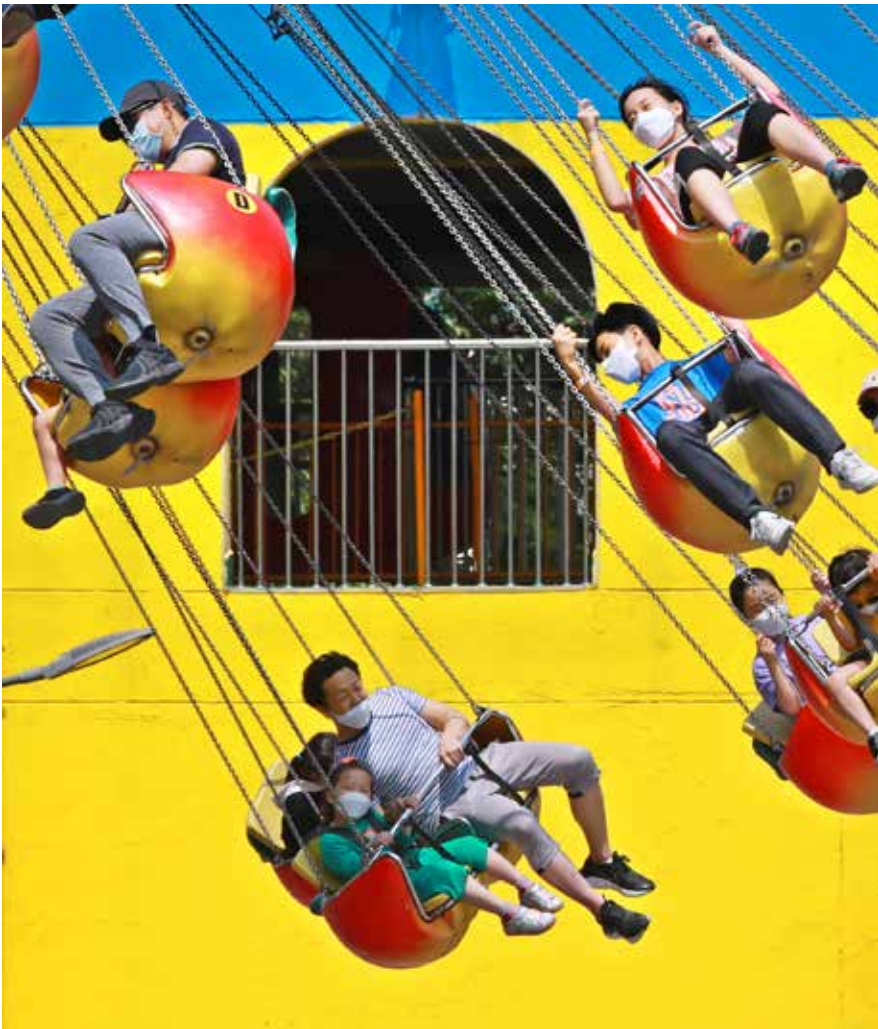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5월 3일 서울 독서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막을 치고 주말 오후를 즐기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 방역)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진은 360카메라로 촬영 후 그래픽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변형해 만들었다.

김도훈 기자





아빠와 함께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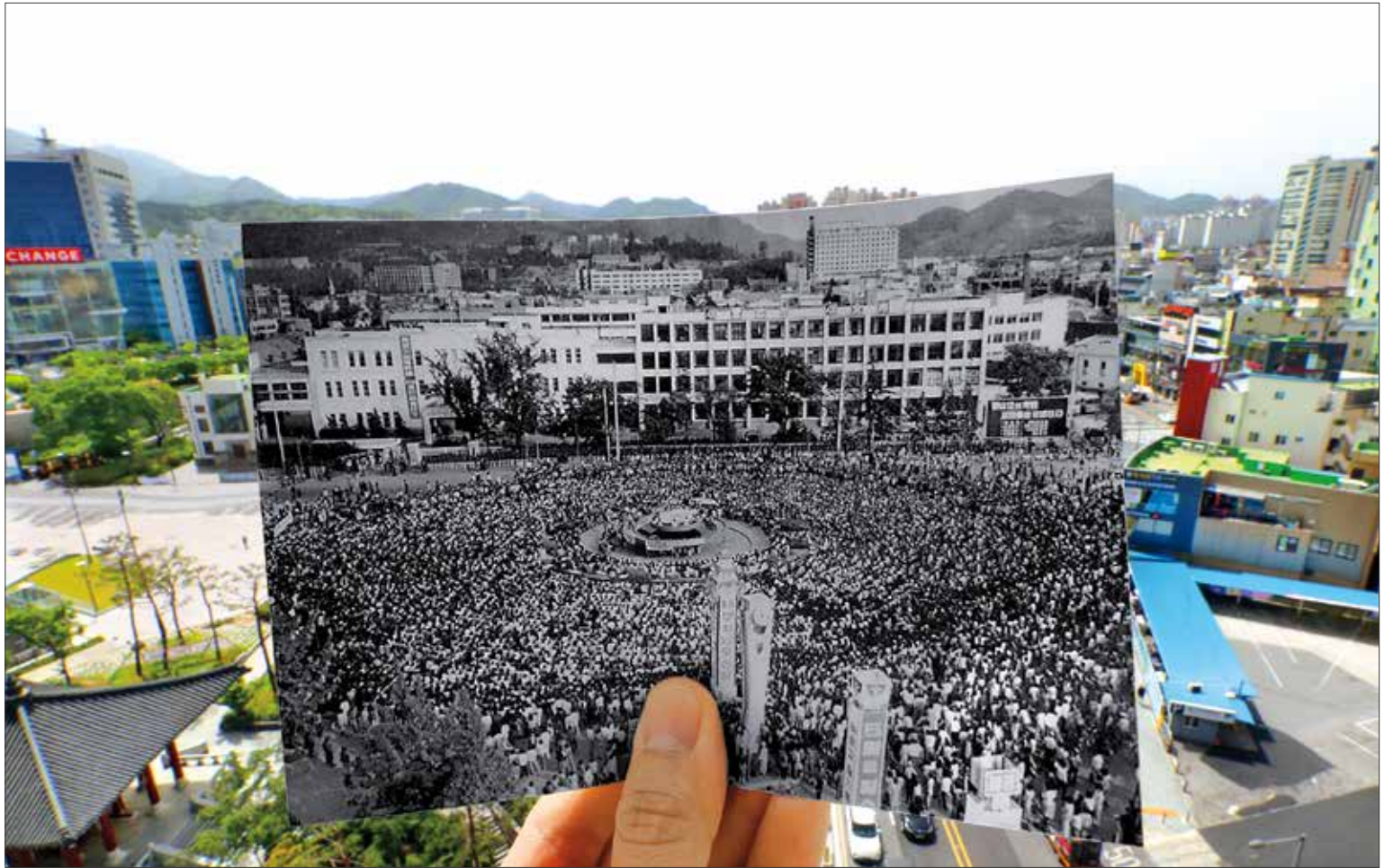
한중찬 기자



80일 만에 등교한 고3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5차례나 연기되며 80일 만에 등교 수업을 시작한 5월 20일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이 3학년 학생들에게 방역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임현정 기자



옛 전남도청 앞 광장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1980년 5월 항쟁 당시 민주 성회를 기록한 사진을 들고 5월 14일 찍은 사진.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은 이곳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5·18 기념식은 1997년 정부 기념일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정화성 기자





물 찬 제비

5월 17일 제주도 조천읍 신촌리 남생이 못에서 제비가 목욕하고 있다.

박지호 기자



신록 예찬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5월 6일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하고 있다.

한종찬 기자



봄 시샘하는 5월 눈

5월 19일 강원 설악산 중청대피소 인근에 내린 눈이 진달래꽃 위에 쌓여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설악산과 향로봉 등 고도 1천500m 이상 도내 고지대 곳곳에 눈이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